

제28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 축 사



2021. 9. 30.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세계한인법률가회 이재욱, 알렉산더 김  
(Alexander Kim)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제28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세계한인법률가회의 발전과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총회 개최를 준비하여 온, 전·  
현직 회장님들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인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 외교부의 최신 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가 75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한민족의 진취성과 개척  
정신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세계한인법률가회는 1988년 제1회 총회부터 지금까지 한인  
법률가들 나아가 회원들이 터를 잡은 곳의 재외동포 사회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중심점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한인법률가회는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이 무엇일지 추구하고 소통하는 장이자, 동시에 회원 여러분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틀입니다.

‘Diversity, Inclusion and Belonging’이라는 이번 총회의 주제가 상징하는 것과 같이, 동질감의 고리인 한국과, 활동하는 다양한 지역이라는 두 가지 인연이 함께 작용할 때, 모두를 더 큰 우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인류는 경제적으로 연결된 시장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합의된 보편적인 가치에 따르는 세계를 지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교류와 통합의 확대에 역행하는 정치적 선택과 자국을 우선하려는 경제적 흐름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그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에 드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의 정립은 앞으로도 더욱 요청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각 주권 국가들마다의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법률과 제도의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시키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법률가’인 회원 여러분이 앞으로 문화와 제도의 차이를 넘나들며, 법의 영역에서 세계적인 대화와 소통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인 법률가 여러분이 맡아서 이끌어야 할 역할도 많아질 것입니다. 한인 법률가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한인 법률가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힘이며,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는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켜 왔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의 권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교류와 협력에 종사하는 한인 법률가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인 법률가 여러분!

이번 총회와 학술대회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한 겨레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대한민국과 여러분이 모두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총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세계한인법률  
가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